



보도 시점	<전매체> 3.7.(금) 08:00	배 포	2025.3.7.(금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담당·배 포 부서	소통 홍보팀	책임자	팀 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주 임	김셋별 (044-300-0721)

## 기정원장, 중소기업 연구개발(R&D) 명예의 전당 기업 방문

### - 특수금속 전문기업 HVM 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진행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이하 기정원) 김영신 원장은 중소기업 연구개발(R&D) 지원사업 성공 기업 중 명예의 전당에 오른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지난 6일 HVM 현장 방문에 나섰다.
- 기정원의 ‘명예의 전당 for SMEs’는 기업의 자긍심 고취, 우수성과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,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(R&D) 지원사업 수혜 기업 중 코스피,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업적을 전시하는 제도이다. 기정원은 2021년부터 명예의 전당 게시판을 조성하여 현재 총 316개(코스피 상장사 33개, 코스닥 상장사 283개)의 기업을 세종 본원에 전시 중이다.
- HVM은 2003년에 설립된 경기도 안양 소재의 글로벌 첨단 금속 전문 기업으로,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금속의 국산화 및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.
- 특히 고청정 진공용해기술, 합금화 공정 기술, 금속 특성 제어 기술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금속의 순도와 내구성을 높이며 이를 반도체, 전자, 항공, 우주, 방위,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산업에 공급

하고 있다.

- 또한, 2021년 5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되었으며 2024년 6월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. 이들은 이스라엘, 미국, 인도 수출 성공 등의 기업 성장을 이루어냈으며,
  -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2012년부터 발사체 관련 금속 소재를 개발하며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 사업에 참여해 특수강과 구리계 첨단 금속을 납품했고, 북미 우주기업 사에도 2022년부터 첨단 금속을 납품하며 우주 항공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.
- 김영신 원장은 HVM 서산 공장을 방문해 첨단 금속 소재의 공정 및 제어 기술을 확인했다. 또한 HVM 최재영 부사장과 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(R&D) 지원사업과 명예의 전당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.
- 최재영 부사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“중소기업 연구개발(R&D) 지원사업 덕분에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지원받으며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고,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업 성과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”고 말했다.
- 기정원 김영신 원장은 “HVM의 상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(R&D)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”고 말하며 “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(R&D)과 우수성과 확산을 위해 기정원이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”고 전했다.